

韓·中 정상 여수엑스포 성공 협력

상하이 엑스포와 연계 ... 양국 이달 말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빠르면 이달 말쯤 한국에서 열린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여수세계박람회와 2010 상하이박람회의 성공 개최 및 박람회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6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한·중 정상회

담 기간 중 '한·중세계박람회 협력교류회(이하 협력교류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보내왔다.
 CCPIT측은 협력교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박람회 참여 및 개최 경험 교류 ▲여수박람회와 상하이박람회 협력·교류 ▲한·중 양국의 박람회를 활용한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교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을 요청했다.
 CCPIT측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한·중 양국 박람회분야 전면 협력 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여수박람회 조직위와 상하이박람회조직위가 '여수박람회 및 상하이박람회 협력 MOU'를 체결할 것도 제안했다.
 MOU가 체결되면 협력교류회에는 한·중 정상을 비롯 조환익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완지페이 CCPIT 회장, 장승우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 등 한·중 정부 관료와 여수 및 상하이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 양국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중국 측이 건의서를 보내옴에 따라 KOTRA 및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를 거쳐 MOU에

들어갈 한·중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협력교류회 주관 부처와 참여 대상 인사 선정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한·중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수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CCPIT로부터 협력교류회를 개최하자는 건의문이 전달돼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 측이 먼저 제안을 해 온데다,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협력방안인 만큼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베이징 올림픽 내일 개막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베이징 시내구간 성화봉송이 시작된 6일 텐안먼 정문에서 아홉번째 주자로 나선 농구스타 야오밍이 성화를 들고 출발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은 8일 밤 8시(한국시각 밤 9시)에 열린다. > 관련기사 18·19면

油價 급락

배럴당 120달러 붕괴

5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소식, 열대성 폭풍 에두아르드가 멕시코만 정유시설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테 하락해 3개월만에 120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9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증가보다 2.24달러(1.2%) 하락한 배럴 당 119.17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5월 2일 배럴당 116.32달러를 기록한 이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로써 WTI 가격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4.7%가 떨어졌으며, 지난달 11일 기록했던 최고가인 147.27달러보다는 28달러 이상 하락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에 비해 3.44달러, 2.9% 떨어진 배럴당 117.24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전날 장중 한 때 배럴당 120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도 수요 감소 전망이 대두하면서 전자거래에서 오후 2시30분께 배럴당 118달러 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낙폭이 다소 줄면서 마감됐다.
 이날 유가의 하락세에는 무엇보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北 인권 개선 진전 있어야”

한·미 정상 “12일 북 테러지원국 삭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협력, 한미 FTA 연내 비준 노력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여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양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오는 12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 총격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북 관계 정

상화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부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이른내 내년에 대화형 연수 취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美 쇠고기 유통 한달 광주·전남선 안팔려

빠졌던 미국산 쇠고기가 광주·전남 지역에 유통된 지 한달을 넘었으나, 유통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수입업체는 유통 부진에

시달려 재고량을 반쯤한데 이어, 또 다른 업체는 시민단체의 항의집회로 인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려고 장사진을 치며 법석을 떨었던 서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6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지원 등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4개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한달동안 3t 정도의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반입했으나, 이중 유통량은 1t에도 미치지 못했다.
 A업체는 2t을 들여왔다가 0.5t을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판매했을 뿐

시민단체의 끈질긴 판매 중단 요구에 밀려 20여일 만에 1.5t을 서울지역 수입업체에 반품하고 말했다.
 또다른 B업체도 최근 700kg을 반입, 이중 500kg을 시중에 판매한 뒤 역시 시민단체의 항의로 200kg을 창고에 보관중이다.
 일부 정육점이나 식육식당 등은 이들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서울지역 수입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소량으로 들여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보니, 뉴질랜드산과 멕시코산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남구 C판매업체의 경우 최근 뉴질랜드산 쇠고기 3t을 사들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반품도 불가능해 창고에 묵히고 있다.
 또 4년7개월만에 수입된 미국산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유통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선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지역 정서에도 영향을 있지만 최근 값싼 한우 직매장이 늘어난데다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가 음식점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국내창고에 대기중이던 미국산 뼈없는 쇠고기의 80% 이상이 검역을 통과했지만, 수입업체는 싸늘한 시장 분위기로 판로를 찾지 못해 반출을 미루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나로우주센터에 시험용 로켓 장착 러시아서 9일 반입 ... 액체연료 주입 시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릴 한 국형 소형위성발사체(KSLV-1)의 성능시험을 위해 들어오는 러시아 '1단 지상시험용 발사체(GTV)'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오는 9일 국내로 반입된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에서 1단 발사체 제작과 운송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일 항공기편으로 이송,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사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항우연은 김해공항에서 발사체 안전 검사 등을 거쳐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11일 선박편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발사체를 옮기게 된다.
 이 발사체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社)가 제작한 것으로 당초 지난달 10일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운송에 필요한 발사체 거치도구인 '치구(置具)' 제작과 나로우주센터 발사시스템 건설 지연 등을 이유로 국내 반입이 늦춰졌다.
 이번에 반입되는 발사체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대신 나로우주센터 발사시스템의 성능 검증과 2단 발사체 등과의 조립, 연료주입 시험 등에 사용된다. 실제 비행용 발사체(Flight Vehicle)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나로우주센터 발사시스템이 완공되는 내달 이후나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명대학 장학금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새 학기 입학은 남부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